

2022년 제2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Baku State University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.

“나누면 나눌수록 행복이
많아 ^{훨진}다”
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
나눔의 중요성을 배운다. “슬픔을 나누면
면 반이 되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
된다”는 말도 있다. 나눔이라고 할 때
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금 소
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과
나누는 것이다.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
하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 ^뿐이지만
나는 감정의 나눔이 더 중요하다고 생
각한다. 특히 슬플 때 ^뿐 풍 이 슬픔을
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
면 ^여 ^여 인생은 쉬워진다.
5년 전에 내 인생과 생각방식, 세
상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
났다. 나를 항상 공주처럼 대하신 아버
님이 돌아가셨다. 원래 아무 건강 문제
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^로 있
해 하루밖에 입원하지 않고 의사들이 어연

2022년 제2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Baku State University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.

수를 써도 목숨은 구하지 못 했다. 아
버지의 생각으로운 사망이 매우 충격스
러웠다. 아직 열여섯 살밖에 안 되는
내 나이로 이 꿈계 큰 충격을 감당할
수가 없었다. 입맛이 없어 음식도 못
먹었고 울기만 하고 있었다. 이 어려운
상황 속에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손을
잡은 우니 사촌 동생이 나에게 큰 힘
이 되었다. 처음에는 내 앞에 있는 이
답답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~~되~~ 이
상황에서 어▷반응을 해야 할지도 몰
랐다. 사촌 동생이 내 옆에 오자마자
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. “네가 지
금 느끼고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나도
슬퍼. 너와 나의 슬픔을 합쳐서 같이
감당하는 게 어때? 나는 항상 너의 옆
에 있을 서니까 너의 슬픔을 나랑 나
눠도 돼.” 이 말을 듣자마자 웬지 모르
지 만 내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과 혼
갈스러움,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았다.

2022년 제2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Baku State University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비임

■ 땅 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
나에게
다 뭐로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
슬픔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우리 사촌
동생뿐이었다.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
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나
의 마음을 털어 놓었다. 내가 지금 느끼
고 있는 이 낯선 감정이나 앞으로 예
대한 두려움을 말했다. 그리고 그녀는
나와 같이 물면서 나의 ~~결정을~~ 안한 마음을
위로했다.
물론 좋은 소식을 나누어서 우리가
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 ~~을~~ 축하
하고 같이 ~~기쁨을~~ 나누는 것도 좋지만
우리의 슬픔마저 받아들고 나눌 수 있
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~~진짜~~ 행복이다.
기쁨이든 슬픔이든 혼자만 느끼지 않
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
것이 아주 중요한다.
감정을 나누어야 ~~우리가~~ 사랑하는
사람들의 시쁨을 보고 우리도 더 행복

2022년 제2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Baku State University

한글 성명: 하사노바 제르베임.

나는 →

해 질 수 있 거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
빨리 벗어 날 수 있다. 사람은 혼자 살
수 있는 존재이다. ~~찬~~우리는 살고 있
는 공간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.
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
감정들도 역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
한다고 생각한다. 그대야 혹은 행복과
혹은 슬픔과 사득한 이 삶을 잘 살
수 있다.